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드디어 격리를 끝내고  
거류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렵게 귀임한 감격으로 핵산검사만 10번씩이나 하지 않았다면  
다들 힘들어 하는 격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 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도시락에 상한 식재료가 있었는지  
두드러기가 나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을 다녀오고 5일을 꼬박 고생하는 바람에  
과연 2차 백신을 맞기 위해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차 백신 접종 효과로 항체가 생겼는데도 오히려 추가 검사를 받느라  
신여권을 신청할 겨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격리를 끝내고 현지인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비록 그동안 내내 온라인으로 함께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서 남녀 그룹이 수련회를 온라인 단기 수기를 겸하여  
현장에 있는 저희 팀과 연합으로 진행하면서  
더욱 특별한 유대감과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는 18일 린형제와 산행을 하면서  
따오현에 개척할 센터 예정지를 답사를 돋고  
8월 중순 귀임 예정인 조선생은 10월에 있을 린형제 가정의 부임을 도우면서  
현지인들이 혹 외롭게 질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질 예정입니다.

저의 귀임 소식을 듣고 린선생님께서 내방하여  
쑨형제 가정과 린형제 가정의 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쑨형제 가정이 청시에서 본부 사역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면서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신실한 헌신께서 린선생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린형제가 저희 현지 단체의 프로젝트 동역자로  
정식 MOU를 맺고 위임되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쑨형제 가정은 동북 X그룹 출신으로 F성 그룹 연합의 후원을 받아  
두 기관의 연합을 통해 현지 사역에 큰 진전을 이룰 재원으로  
린형제는 현지 그룹과 저희 현지 단체간의 교량 역할을 하며  
현지의 시민운동과 국내 시민운동에 기여할 재원으로  
이렇게 헌신의 분명한 기름부으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많은 분들의 강력한 후원 덕분입니다.

이태나 명절 때 고향에 못 다녀온 예라와 초놀이  
저희 산행에 동행합니다.  
그동안 미루어 온 룽투와의 이혼 수속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 드해 왔으나 ㅎ ㄴ ㄴ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뤼형제 아들 야거 역시 이혼을 하고 부부가 서로 맡지 않으려는 손자를  
결국 뤼형제 부부가 맡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귀임 길에 올라 내일쯤 청시를 경유하려 하는데  
먼 길을 오가느라 그새 차량이 노화되었는지 기름이 샌다고 도중에 수리를 한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피곤한 여정이 어린 아이도 있고 차량도 고장을 일으키니  
심신이 얼마나 고달풀까 마음이 짠합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임지로 향하는 열정을 기뻐하시는  
ㅎ ㄴ ㄴ께서 새 힘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 가정을 통해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바나바 올림